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숙련도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김남현

승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석사

이용규

승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The Effect of KICPA Audit Proficiency on Discretionary Accruals

Nam-Hun Kim^a, Yong-Kyu Lee^b

^a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8 Nov 2019, Revised 16 Dec 2019, Accepted 24 Dec 2019

Abstract

The recently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has taken effect as of November 2018, where standard audit hour rule is included to enhance the audit quality requiring appropriate audit hour input. It has two issues, one is how much the standard audit hours should be and the other is how to control the auditor proficiency between positions when deciding standard audit hours. This paper focuses on the latter issue and studies if auditor proficiency measured with the KICPA position proficiency weight is economically meaningful and has audit quality implication. The KICPA proficiency weights of partner and junior CPA are 1.2, and 0.4 with senior CPA being 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audit proficiency decreases discretionary accruals, the proxy of audit quality. Second, the degree to which the audit proficiency decreases discretionary accruals is pronounced with non-big4 firm. The results imply that the KICPA position proficiency weight reflects auditor experiences which help to improve audit quality.

Keywords: Audit Hour, Audit Proficiency, Audit Quality, Discretionary Accruals, Standard Audit Hour

JEL Classifications: M40, M42

^a First Author, E-mail: nhk3070@nate.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yklee@ssu.ac.kr

© 2019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대규모 분식회계가 반복되어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낮아짐에 따라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¹⁾에서는 적절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표준감사시간 규정을 만들었으며 2019년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구체적인 표준감사시간 제도 시행방법을 확정한 것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²⁾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적절한 감사투입시간(표준감사시간)은 얼마인가와 표준감사시간 설정시 감사인의 감사경험인 감사숙련도 직급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이다.³⁾ 특히 확정된 표준감사시간 제도에서는 담당이사,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의 개별감사팀 감사숙련도를 구분하고 직급별 가중치를 등록회계사를 1로 했을 때 감사경험이 많은 담당이사에게는 1.2의 가중치를, 감사경험이 적은 수습회계사에게는 0.4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⁴⁾

1) 금융위원회(20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법률 제 15022호(2017.10.31. 전부개정, 2018.11.1. 시행)

2)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감사시간 확정에서 “감사품질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보도자료, 2019.2.14.)

3)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 현황 분석에서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감사 투입 인력 중 수습회계사보다 등록회계사 수가 많을수록 감사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중요 현안으로 (1) 적절한 감사투입시간(표준감사시간)과 (2) 감사숙련도 조정방안을 중요 현안으로 언급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7.25.)

4)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표준감사시간 자료에 제시된 이 가중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별도의 분석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11.page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개별감사팀의 팀 단위 평균경력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Sohn Sung-Kyu, Lee Young-Han and Shin Yong-In, 2006)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KICPA)의 감사인 직급별 숙련도 가중치가 과연 감사인 경력(감사인 경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실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CPA가 규정한 직급별 가중치로 조정된 감사시간(이하 조정감사시간)과 단순감사시간의 차이를 감사숙련도(이하 KICPA 감사숙련도)로 정의하고 이 변수가 재무적 발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직급별 감사시간이 공식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보고서의 담당이사,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의 감사시간과 KICPA가 제시한 직급별 가중치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감사시간을 통제된 상태에서 조정감사시간과 단순감사시간의 차이로 측정된 KICPA 감사숙련도가 클수록 재무적 발생액이 감소하였다. 이는 동일한 단순감사시간이라 하더라도 감사숙련도가 높을수록 감사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감사법인 규모에 따라 KICPA 감사숙련도가 재무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형감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감사법인의 KICPA 감사숙련도가 재무적 발생액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많은 회계사로 구성된 중소감사법인 경우, 대형법인에 비해 감사숙련도가 감사품질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제시한 직급별 숙련도 가중치가 감사인의 경력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감사시간이 동일하더라도 감사팀의 평균경력이나 경험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더 높을 것이라는 회계감사 실무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표본 선정기준을 설명한다. 제4장은 실증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 등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감사인의 경험 및 직급에 따라 감사수행업무가 상이하다는 연구에는 O'Keefe, Simunic and Stein (1994), Hackenbrack and Knechel (1997), Bell, Doogar and Solomon (2008) 등이 있다. 기업의 위험과 감사투입인력 배합을 다룬 O'Keefe, Simunic and Stein (1994), Bell, Doogar and Solomon (2008)은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상위직급자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였다.⁵⁾ 감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직급별 투입시간의 관련성을 다룬 Hackenbrack and Knechel (1997)은 직급이 높을수록 감사계획이나 감독 및 검토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낮은 직급일수록 실사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감사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직급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형회계법인의 내부 직급별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을 다룬 연구로 Sohn Sung-Kyu, Lee Young-Han and Shin Yong-In (2006)과 Ryu Seung-Woo et al. (2015)가 있다. Sohn Sung-Kyu, Lee Young-Han and Shin Yong-In (2006)은 총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은 음의 관련성을 보이나 상위직급 감사인인 파트너의 감사시간 및 투입비율은 재량적 발생액과는 관련성이 없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Ryu Seung-Woo et al. (2015)은 직급별 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직급별로 다르게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상장기업의 직급별 감사시간 공시자료를 이용한 Kim Yong-Soo and Jeon Kyu-An (2016)은 감사팀의 직급별 구성 인원 중 품질관

리검토자 및 등록회계사의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을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Big4 대형감사인인 경우에 두드러진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감사시간이 아닌 감사팀의 구성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Hossain, Yazawa and Monroe (2017)에서는 담당이사나·시니어 회계사 인원수는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으나, 기타인원은 감사품질과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직급별 감사시간에 가중치를 이용하여 연구에는 Davis, Ricchiute and Trompeter (1993)와 Lee Jae-Eun, Bae Gil-S. and Choi Seung-Uk (2018)가 있다. Davis, Ricchiute and Trompeter (1993)는 감사시간 변수 값으로는 실제감사시간, 직급별 시간당보수 비율을 가중치로 한 감사시간, 직급별 시간당보수금액을 가중치로 한 감사시간을 적용하여 비감사서비스 수행이 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Lee Jae-Eun, Bae Gil-S. and Choi Seung-Uk (2018)은 직급별 시간당보수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측정된 감사시간을 감사경험 및 감사숙련도가 반영된 감사시간으로 보고 이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감사시간의 측정방법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직급별 감사시간을 이용하거나(Sohn Sung-Kyu, Lee Young-Han and Shin Yong-In, 2006; Kim Yong-Soo and Jeon Kyu-An, 2016), 전체감사시간 대비 상위직급자 감사시간 비율을 이용하거나(Ryu, Seung-Woo et al., 2015), 감사시간에 적용하는 직급별 가중치로 직급별 인원수(Hossain et al., 2017) 또는 직급별 시간당 보수율(Lee Jae-Eun, Bae Gil-S. and Choi Seung-Uk, 2018)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KICPA에서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직급별 가중치를 직급별 감사시간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KICPA의 직급별 가중치가 감사인 경험이나 숙련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인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5) Schelleman and Knechel (2010)에서는 전기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위험에 대응하여 감사시간을 늘리지만 인력투입배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실증결과를 보였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론과 유사한 분석을 한 Lee Jae-Eun, Bae Gil-S. and Choi Seung-Uk (2018)와 연구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직급별 시간당 보수율을 숙련도의 대응치로 보고 이를 반영한 감사시간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향후 표준감사시간 산정에 적용할 공식적인 KICPA 직급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감사숙련도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어 감사인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KICPA가 규정한 가중치가 감사인의 숙련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Caramanis and Lennox, 2008 등)가 있으며 대체로 감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품질이 제고되며, 직급별 감사시간이 차별적으로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어 감사인의 경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yu Seung-Woo et al., 2015; Kim Yong-Soo and Jeon Kyu-An, 2016).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급별 감사시간에 직급에 따른 경험이나 숙련도를 반영하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Lee Jae-Eun, Bae Gil-S. and Choi Seung-Uk (2018)은 감사인의 직급별 시간당 보수율을 가중치로 분석을 시도 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감사인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중요하지 않거나 숙련도의 대응치인 가중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일관된 분석에 의하면 가중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실무에서 표준감사시간 산정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KICPA의 직급별 가중치로 비교 가능한 동일한 분석과 가설을 수립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KICPA 직급별 가중치가 반영된 조정감사시간과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감사시간의 차이로 측정된 KICPA 감사숙련도를 감사인의 경험이나 경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볼 때 KICPA 숙련도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H1 KICPA 숙련도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할 것이다.

KICPA 직급별 가중치가 감사인의 경험정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고, 감사인의 경험이 클수록 감사품질이 좋아진다면 조정감사시간과 단순감사시간의 차이 즉, KICPA 감사숙련도는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회계감사 실무에 의하면 동일한 감사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대형법인 소속 감사팀보다 중소형 법인의 감사팀이 평균적으로 감사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개별 감사인의 경험이나 특성보다는 법인에서 전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감사 통제시스템이 감사품질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개별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경험이 많고 적음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 회계법인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법인에 비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KICPA 숙련도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더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의 가설 2를 수립한다.

H2 대형 회계법인에 비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KICPA 감사숙련도가 재량적 발생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2. 연구모형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회계모형 식(1)에서는 관심변수로 KICPA 감사숙련도 (AHG)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정감사시간에서 단순감사시간을 차감한 것이다. 한편 단순감사시간(AH)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KICPA 숙련도가 순수하게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회계모형 식(2)는 가설 1의 KICPA 감사숙련도(AHG)와 중소형감사인(NonBig4) 더미변수를 결합하여 관심변수(AHG*NonBig4)로 사용하였고, 통제변수로 단순감사시간(AH) 및 단순감사시간에 중소형 감사인(NonBig4) 더미변수를 결합한 변수(AH*NonBig4)를 추가하였다. 단순감사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련성이 감사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한 모형이다.

식(1)과 식(2)의 모형식은 종속변수로 감사품질의 대용치라고 할 수 있는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DA)를 사용하는데 특히 Kothari, Leone and Wasley (2005)가 제시한, 수정 Jones모형에 당기 총자산수익률(ROA)을 포함한 모형을 이용하여 비재량적 발생액의 기대치를 구하고 이를 실제 발생액에서 차감한 수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기타 통제변수들은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Myers et al., 2003; Rho Joon-Hwa, 2009; Bae Gil-S., Choi Seung-Uk and Lee Jae-Eun, 2014)에서 근거하여 설정하였는데 기업규모와 복잡성 통제를 위한 총자산(Size), 해외매출비율(Frgn), 재고자산·매출채권 비중(InvRec)이다. 또한 지배구조 차이 통제를 위한 최대주주 지분율(LargeShare)과 재무위험 영향 통제를 위한 재무활동현금흐름 증가 여부(Issue), 손실기업 여부(Loss), 기업성장률(Growth), 영업활동현금흐름(Cfo), 부채비율(Lev)을 선정하였으며, 전기 발생액을 이용한 당기 반전효과의 이익조정가능성 영향 통제를 위한 전기발생액(LagAccruals), 초도감사 여부(First), 코스닥시장 여부(Market), 업종 및 연도

별 고정효과 통제를 위한 산업별 더미(Ind)와 연도별 더미(Year)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⁶⁾

$$DA_{it} = \beta_0 + \beta_1 AH_{it} + \beta_2 AHG_{it} + \beta_3 NonBig4_{it} + \beta_4 Size_{it} + \beta_5 Frgn_{it} + \beta_6 InvRec_{it} + \beta_7 LargeShare_{it} + \beta_8 Issue_{it} + \beta_9 Loss_{it} + \beta_{10} Growth_{it} + \beta_{11} Cfo_{it} + \beta_{12} Lev_{it} + \beta_{13} LagAccruals_{it-1} + \beta_{14} First_{it} + \beta_{15} Market_{it} + \sum_{j=0}^3 \beta_{16+j} Ind_{it} + \sum_{j=0}^2 \beta_{20+j} Year_{it} + \epsilon_{it} \tag{1}$$

$$DA_{it} = \beta_0 + \beta_1 AH_{it} + \beta_2 AH*NonBig4_{it} + \beta_3 AHG_{it} + \beta_4 AHG*NonBig4_{it} + \beta_5 NonBig4_{it} + \beta_6 Size_{it} + \beta_7 Frgn_{it} + \beta_8 InvRec_{it} + \beta_9 LargeShare_{it} + \beta_{10} Issue_{it} + \beta_{11} Loss_{it} + \beta_{12} Growth_{it} + \beta_{13} Cfo_{it} + \beta_{14} Lev_{it} + \beta_{15} LagAccruals_{it-1} + \beta_{16} First_{it} + \beta_{17} Market_{it} + \sum_{j=0}^3 \beta_{18+j} Ind_{it} + \sum_{j=0}^2 \beta_{22+j} Year_{it} + \epsilon_{it} \tag{2}$$

-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 PAH(Proficiency-adjusted Audit Hour) : 조정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 AHG(Audit Hours Gap) : KICPA 감사숙련도 (PAH-AH)
- AH*NonBig4 : 단순감사시간과 중소형감사인 더미의 상호작용 변수
- AHG*NonBig4 : KICPA 감사숙련도와 중소형감사인 더미의 상호작용 변수
- NonBig4 : 중소형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Size : 총자산(기말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6) 총자산수익률(ROA)을 통제변수로 넣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비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1. Sample Selection Procedure

Classification	Companies/Year
A Listed Company at the KOSPI/KOSDAQ (2014~2017)	10,915
Missing Value	(7,152)
Administrative Issues	(141)
Settlement Month	(46)
Impaired Capital	(6)
Outlier	(121)
Total	3,449

Frgn : 해외매출비율
 InvRec : 재고자산·매출채권 비중
 LargeShare : 최대주주 지분율
 Issue : 재무활동현금흐름 증가 여부(증가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Loss : 당기순손실 기업 여부(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Growth : 자산성장률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Lev : 부채비율
 LagAccruals : 전기 총발생액
 First : 초도감사 여부(초도감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Market : 코스닥시장 여부(코스닥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d : 산업별 더미
 Year : 연도별 더미

3. 표본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 기간은 직급별 감사시간 외부공시 시행연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직급별 감사시간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였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기업을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 Sample Distribution

Classification by Industry	Year				Total
	2014	2015	2016	2017	
Manufacturing Industry	635	677	682	731	2,725 (79.01%)
Service Industry	114	114	117	112	457 (13.25%)
Construction Industry	14	16	14	10	54 (1.57%)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45	50	48	45	188 (5.45%)
Other	5	5	8	7	25 (0.72%)
Total	813 (23.57%)	862 (24.99%)	869 (25.20%)	905 (26.24%)	3,449 (10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D	Min	Median	Max
DA	-0.002	0.077	-0.282	-0.001	0.581
AHH	800.1	861.7	13.00	606.0	14,321
AH	6.473	0.569	2.565	6.407	9.569
PAH	6.358	0.538	2.747	6.302	9.529
AHG	-0.115	0.150	-0.644	-0.111	0.182
NonBig4	0.502	0.500	0	1	1
Size	25.89	1.256	22.54	25.66	31.61
Frgn	0.366	0.301	0	0.318	1
InvRec	0.471	1.689	0.001	0.245	47.55
LargeShare	0.274	0.141	0	0.244	0.855
Issue	0.515	0.500	0	1	1
Loss	0.270	0.444	0	0	1
Growth	0.080	0.257	-0.701	0.040	4.467
Cfo	0.050	0.094	-0.807	0.049	0.828
Lev	0.383	0.197	0.007	0.375	0.988
LagAccruals	-0.128	2.620	-145.28	-0.025	2.808
First	0.307	0.461	0	0	1
Market	0.617	0.486	0	1	1

N=3,449

Note: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H : 단순감사시간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PAH(Proficiency-adjusted Audit Hour) : 조정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HG(Audit Hours Gap) : KICPA 감사숙련도 (PAH-AH)

NonBig4 : 중소형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 총자산(기말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Frgn : 해외매출비율(수출액 / 매출액)

InvRec : 재고자산·매출채권 비중(재고자산+매출채권 / 기말자산총계)

LargeShare : 최대주주 지분율

Issue : 재무활동현금흐름 증가 여부(증가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Loss : 당기순손실 기업 여부(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Growth : 자산성장률(기말자산총계-기초자산총계 / 기초자산총계)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 / 기초자산총계)

Lev : 부채비율(기말부채총계 / 기말자산총계)

LagAccruals : 전기 총발생액(당기순이익 - 영업활동현금흐름 / 기초자산총계)

First : 초도감사 여부(초도감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Market : 코스닥시장 여부(코스닥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1) 비금융업 기업
- (2) 관리대상 종목이 아닌 기업
- (3)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 (4)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5) NICE 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재무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업
-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직급별 감사시간 수집이 가능한 기업

(1) 금융업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재무제표의 양식 등 재무자료의 특성이 상이하어 일반기업과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2) 관리대상 종목의 기업은 다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3)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은 최종 결산월을 일치시켜 재무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였다. (4) 자본잠식 기업은 다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치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각 변수들의 상·하위 극단치를 제거하였고, 표준화잔차인

Studentized Residual의 값이 ±2를 벗어나는 관찰치를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위 조건에 따라 최종표본은 3,449개가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최종표본에 대한 종속변수, 관심변수,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의하면 전체표본의 재량적 발생액(DA)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002와 -0.001이다. 단순감사시간(AHH)의 평균은 800.1시간이며, 자연로그값(AH) 평균은 6.473이다. 조정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PAH) 평균은 6.358이다. 관심변수로 사용한 KICPA 감사숙련도(AHG)의 평균은 -0.115이다.

Table 4. NonBig4-Big4 Sample Differences

Variable	NonBig4			Big4		
	Mean	Median	SD	Mean	Median	SD
DA	0.004	0.003	0.079	-0.001	0.000	0.074
AHH	542.6	493.0	405.7	1,059	779.0	1,091
AH	6.205	6.200	0.406	6.743	6.658	0.582
PAH	6.197	6.190	0.410	6.520	6.441	0.599
AHG	-0.007	0.025	0.100	-0.223	-0.215	0.108
Size	25.46	25.38	0.818	26.33	26.10	1.452
N		1,730			1,719	

Note: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H : 단순감사시간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PAH(Proficiency-adjusted Audit Hour) : 조정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HG(Audit Hours Gap) : KICPA 감사숙련도 (PAH-AH)

NonBig4 : 중소형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 총자산(기말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통제변수의 경우 50.2%가 중소형감사인 (NonBig4)을 선임하였으며 자연로그를 취하여 구한 값으로 총자산(Size)의 평균은 25.89 였다. 해외매출비율(Frgn)은 평균 36.6%이며 재고자산·매출채권 비중(InvRec)의 평균은 47.1%이다. 대주주 지분율(LargeShare)의 평균은 27.4%이고, 평균 51.5%가 재무활동현금흐름이 증가(Issue)하였다. 전체 표본의 27.0%가 당기순손실(Loss)을 보였다. 자산성장성(Growth)은 평균 8.0%로 나타났다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Cfo)의 평균은 0.050 이었다.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38.3% 이며, 전기 총발생액의 평균은 -0.128이다. 감사인을 변경한 초도감사(First)는 전체의 30.7% 였으며 코스닥상장 기업(Market)은 61.7% 였다.

(Table 4)는 대형감사인과 중소형감사인 간 주요 변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 (DA)는 중소형감사인과 대형감사인 평균이 0.004와 -0.001으로 대형감사인인 경우가 더 낮았다. 단순감사시간(AHH) 평균은 중소형감사인이 542.6, 대형감사인은 1,059이고, 자연로그값 (AH) 평균은 중소형감사인이 6.205, 대형감사인이 6.743으로 대형감사인의 실제감사시간이 중소형감사인보다 더 많이 투입되었다. 조정감사시간(PAH) 평균은 중소형감사인이 6.197, 대형

감사인이 6,520으로 이 또한, 대형감사인이 중소형감사인보다 높았다. 관심변수인 KICPA 감사숙련도(AHG)의 평균은 중소형감사인이 -0.007, 대형감사인이 -0.223으로 대형감사인이 중소형감사인보다 더 컸다. 표본 수는 중소형감사인이 1,730개, 대형감사인이 1,719개로 두 표본 간에 거의 동일한 크기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감사시간과 관련된 변수인 단순감사시간(AHH, AH), 조정감사시간 (PAH)은 모두 재량적 발생액(DA)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가설 1의 관심변수인 KICPA 감사숙련도(AHG)는 재량적 발생액(DA)과 유의하지 않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 분석한 결과이므로, 다른 변수들을 적절하게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 2의 초점인 NonBig4 변수와 감사시간과 관련된 변수인 단순감사시간(AHH, AH), 조정감사시간(PAH)는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ICPA 감사숙련도(AHG)는 NonBig4 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Correlations

Variable	DA	AHH	AH	PAH	AHG	NonBig4
DA	1	-0.039 **	-0.039 ***	-0.038 **	0.007	0.024
AHH	-0.023 **	1	1.000 ***	0.938 ***	-0.382 ***	-0.508 ***
AH	-0.040 **	0.808 ***	1	0.938 ***	-0.382 ***	-0.508 ***
PAH	-0.039 **	0.799 ***	0.965 ***	1	-0.068 ***	-0.284 ***
AHG	0.010	-0.201 ***	-0.335 ***	-0.077 ***	1	0.735 ***
NonBig4	0.030 *	-0.300 ***	-0.473 ***	-0.300 ***	0.719 ***	1

Notes: 1.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H : 단순감사시간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PAH(Proficiency-adjusted Audit Hour) : 조정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HG(Audit Hours Gap) : KICPA 감사숙련도 (PAH-AH)

NonBig4 : 중소형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6. Association of Actual Hours with Discretionary Accruals

Variable	DA		
	Coefficient	t Value	Significance
AH	-0.007	-2.95 ***	0.003
NonBig4	-0.002	-0.92	0.359
Size	0.005	4.49 ***	0.001
Frgn	0.000	0.04	0.965
InvRec	0.001	1.39	0.164
LargeShare	0.024	3.92 ***	0.001
Issue	-0.007	-3.95 ***	0.001
Loss	-0.083	-39.13 ***	0.001
Growth	0.069	20.16 ***	0.001
Cfo	-0.640	-65.69 ***	0.001
Lev	-0.024	-5.26 ***	0.001
LagAccruals	-0.000	-1.12	0.263
First	0.002	1.20	0.229
Market	0.002	1.06	0.288
Ind		Included	
Year		Included	
F-value		250.36***	
Adj R ²		0.603	
N		3,449	

Notes: 1.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NonBig4 : 중소형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 총자산(기말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Frgn : 해외매출비율

InvRec : 재고자산-매출채권 비중

LargeShare : 최대주주 지분율

Issue : 재무활동현금흐름 증가 여부(증가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Loss : 당기순손실 기업 여부(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Growth : 자산성장률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Lev : 부채비율

LagAccruals : 전기 총발생액

First : 초도감사 여부(초도감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Market : 코스닥시장 여부(코스닥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d : 산업별 더미

Year : 연도별 더미

2.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7. Association of Proficiency-Adjusted Hours with Audit Quality

Variable	DA		
	Coefficient	t Value	Significance
PAH	-0.008	-3.49 ***	0.001
NonBig4	-0.000	-0.25	0.804
Size	0.005	4.80 ***	0.001
Frgn	0.000	0.06	0.952
InvRec	0.001	1.39	0.164
LargeShare	0.023	3.87 ***	0.001
Issue	-0.007	-3.96 ***	0.001
Loss	-0.083	-39.10 ***	0.001
Growth	0.069	20.19 ***	0.001
Cfo	-0.640	-65.75 ***	0.001
Lev	-0.024	-5.22 ***	0.001
LagAccruals	-0.000	-1.10	0.271
First	0.003	1.25	0.211
Market	0.002	1.12	0.264
Ind		Included	
Year		Included	
F-value		250.79***	
Adj R ²		0.603	
N		3,449	

Notes: 1.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PAH(Proficiency-adjusted Audit Hour) : 조정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2.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2. 회귀분석

1) 단순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많은 선행연구(Caramanis and Lennox, 2008; Lee Jae-Eun, Bae Gil-S. and Choi Seung-Uk, 2018; Ryu Seung-Woo et al., 2015)에서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의 비교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선행연구와 같은 연구결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가설 1의 분석결과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기존의 연구모형에서 관심변수만 단순감사시간

(AH)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단순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의하면 단순감사시간(AH)는 -0.007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줄어들어 감사품질이 높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관성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조정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앞서 서술한 단순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감사시

Table 8. Result for Regression Analysis of Model 1

Variable	DA		
	Coefficient	t Value	Significance
AH	-0.007	-2.91 ***	0.003
AHG	-0.020	-2.40 **	0.017
NonBig4	0.002	0.90	0.367
Size	0.005	4.48 ***	0.001
Frgn	-0.000	-0.00	0.999
InvRec	0.001	1.38	0.167
LargeShare	0.024	3.91 ***	0.001
Issue	-0.007	-3.98 ***	0.001
Loss	-0.083	-39.12 ***	0.001
Growth	0.069	20.21 ***	0.001
Cfo	-0.640	-65.77 ***	0.001
Lev	-0.025	-5.29 ***	0.001
LagAccruals	-0.000	-1.07	0.286
First	0.002	1.20	0.229
Market	0.002	1.09	0.277
Ind		Included	
Year		Included	
F-value		239.58***	
Adj R ²		0.603	
N		3,449	

Notes: 1.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HG(Audit Hours Gap) : KICPA 감사숙련도 (PAH-AH)

NonBig4 : 중소형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 총자산(기말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Frgn : 해외매출비율

InvRec : 재고자산·매출채권 비중

LargeShare : 최대주주 지분율

Issue : 재무활동현금흐름 증가 여부(증가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Loss : 당기순손실 기업 여부(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Growth : 자산성장률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Lev : 부채비율

LagAccruals : 전기 총발생액

First : 초도감사 여부(초도감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Market : 코스닥시장 여부(코스닥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d : 산업별 더미

Year : 연도별 더미

2.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9. Result for Regression Analysis of Model 1 by Nonbig4-Big4

Variable	DA					
	Nonbig4			Big4		
	Coefficient	t Value	Significance	Coefficient	t Value	Significance
AH	-0.004	-1.11	0.268	-0.009	-2.95 ***	0.003
AHG	-0.033	-2.73 ***	0.006	-0.008	-0.74	0.461
Size	0.007	3.62 ***	0.001	0.005	3.41 ***	0.001
Frgn	-0.003	-0.77	0.442	0.002	0.58	0.564
InvRec	0.002	1.70 *	0.089	-0.000	0.73	0.466
LargeShare	0.027	2.71 ***	0.006	0.020	2.64 ***	0.008
Issue	-0.007	-2.88 ***	0.004	-0.006	-2.72 ***	0.007
Loss	-0.085	-28.55 ***	0.001	-0.081	-26.35 ***	0.001
Growth	0.069	13.73 ***	0.001	0.069	14.84 ***	0.001
Cfo	-0.651	-47.00 ***	0.001	-0.630	-45.76 ***	0.001
Lev	-0.029	-4.29 ***	0.001	-0.022	-3.41 ***	0.001
LagAccruals	-0.000	-1.07	0.283	0.002	1.51	0.131
First	0.004	1.18	0.237	0.002	0.53	0.597
Market	0.001	0.43	0.669	0.004	1.21	0.225
In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F-value		129.61***			122.04***	
Adj R ²		0.609			0.597	
N		1,730			1,719	

Notes: 1.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HG(Audit Hours Gap) : KICPA 감사숙련도 (PAH-AH)

NonBig4 : 중소형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감사인 경험을 반영한 조정감사시간 또한 동일한 연구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력자 투입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Hackenbrack and Knechel, 1997)도 있으므로 조정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기존의 연구모형에서 관심 변수만 조정감사시간(PAH)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조정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조정감사시간(PAH)은 -0.008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단순감사시간과 마찬가지로 조정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한다는 기존 선행 연구와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3)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가설 1 검증)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

Table 10. Result for Regression Analysis of Model 2

Variable	DA		
	Coefficient	t Value	Significance
AH	-0.010	-3.56 ***	0.001
AH*NonBig4	0.007	1.90 *	0.058
AHG	-0.005	-0.50	0.619
AHG*NonBig4	-0.027	-1.67 *	0.095
NonBig4	-0.045	-1.91 *	0.056
Size	0.005	4.78 ***	0.001
Frgn	-0.000	-0.14	0.891
InvRec	0.001	1.48	0.140
LargeShare	0.023	3.82 ***	0.001
Issue	-0.007	-3.98 ***	0.001
Loss	-0.083	-39.08 ***	0.001
Growth	0.069	20.22 ***	0.001
Cfo	-0.641	-65.82 ***	0.001
Lev	-0.025	-5.33 ***	0.001
LagAccruals	-0.000	-1.02	0.309
First	0.003	1.23	0.219
Market	0.003	1.25	0.212
Ind		Included	
Year		Included	
F-value		220.18***	
Adj R ²		0.604	
N		3,449	

Notes: 1. Variable:

DA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Audit Hour) : 단순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H*NonBig4 : 단순감사시간과 중소기업감사인 더미의 상호작용 변수

AHG(Audit Hours Gap) : KICPA 감사숙련도 (PAH-AH)

AHG*NonBig4 : KICPA 감사숙련도와 중소기업감사인 더미의 상호작용 변수

NonBig4 : 중소기업감사인 더미(감사인이 NonBig4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KICPA 감사숙련도가 단순감사시간을 통제된 후에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KICPA 감사숙련도(AHG)의 계수값은 -0.020으로 예상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KICPA 감사숙련도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단순감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상위직급자의 시간 비중이 높고 감사인경험이 더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하고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 Size와 Largeshare,

Growth는 각각 0.005와 0.024, 0.069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며, Issue와 Loss, Cfo, Lev는 각각 -0.007과 -0.083, -0.640, -0.025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인 Nonbig4, Frgn, Invrec, LagAccruals, First, Market은 유의하지 않았다.

4) 감사인 규모별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

전체 표본을 중소형감사인(Nonbig4)과 대형감사인(Big4)으로 나누어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련성을 각각 분석한 실증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의하면 중소형감사인(Nonbig4) 표본에서 KICPA 감사숙련도(AHG)가 -0.03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대형감사인(Big4) 표본에서는 KICPA 감사숙련도(AHG)가 -0.008으로 음(-)의 값이 나왔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설 1에서 KICPA 감사숙련도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인 낮다는 결과는 중소형감사인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감사인 규모에 따른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가설2 검증)

감사인 규모에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의 모형에 감사인 규모에 따른 결합효과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분석으로 관심변수는 KICPA 감사숙련도(AHG)와 중소형감사인 더미변수(NonBig4)를 결합한 상호작용변수이다. 분석결과, 관심변수인 AHG*NonBig4는 -0.027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소형 감사인의 경우 KICPA 감사숙련도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대형 감사인보다 크다는 것으로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 대형 감사인의 KICPA 감사숙련도(AHG)는 <Table 9>의 대형감사인

(Big4) 표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소형 법인은 대형 법인과는 달리 개별 회계사의 경험 등 감사팀의 인적구성이나 특성이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형 법인의 경우 내부심리제도 및 품질관리제도와 같은 법인 내의 감사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개별 회계사의 경험이나 특성에 따라 감사품질이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2017년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서는 적절한 감사시간투입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표준감사시간제도를 규정한 바 있다.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사투입시간(표준감사시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표준감사시간 설정시 개별 회계사의 직급에 따른 감사숙련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근 KICPA에서는 이들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확정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감사시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경험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감사시간에 KICPA에서 제시한 직급별 숙련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구한 조정감사시간과, 단순감사시간의 차이를 감사인의 경험이 반영된 KICPA 감사숙련도로 정의하고 이 변수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KICPA 감사숙련도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사숙련도 즉 감사인의 경험이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감사인규모(대형과 중소형)가 KICPA 감사숙련도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숙련도가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주로 중소형 감사인에서 나타나며 대형 감사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중소형 법인은 대형 법인과는 달리 개별 회계사의 경험 등 감사팀의 인적구성이나 특성이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형 법인의 경우 내부심리제도 및 품질관리제도와 같은 법인 내의 감사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개별 회계사의 경험이나 특성에 따라 감사품질이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별 시간당 보수율을 숙련도 가중치로 사용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표준감사시간제도 하에서 KICPA가 규정한 직급별 숙련도를 고려한 가중치의 효과에 대해 검증한 최초의 연구이다. 둘

째, KICPA 감사숙련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감사인의 경험이 감사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감사인의 경험과 감사품질에 대한 기존 감사연구를 확대하였다.

셋째, 감사인 규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형 감사법인이 상대적으로 감사시간당 감사품질에 기여하는 바가 더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감사시간에 직급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적정한 감사투입시간(표준감사시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Bae, Gil-S., Seung-Uk Choi and Jae-Eun Lee (2014), "Audit Partner's Experiences and Their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Audit Hours, Audit Fees, and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Journal*, 23(6), 175-235.
- Bell, T., R. Dooger, and I. Solomon (2008), "Audit Labor Usage and Fees Under Business Risk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4), 729-760.
- Caramanis, C., and C. Lennox (2008),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1), 116-138.
- Davis, L., D. Ricchiute, and G. Trompeter (1993), "Audit Effort, Audit Fees, and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to Audit Clients", *The Accounting Review*, 68(1), 135-150.
- Hackenbrack, K., and W. Knechel (1997),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in Audit Engagemen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4(3), 481-499.
- Hossain, S., K. Yazawa, and G. Monroe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Team Composition, Audit Fees, and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6(3), 115-135.
- Kim, Yong-Soo and Kyu-An Jeon (2016), "The Effects of the Position-Specific Audit Hours on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Korean Management Review*, 45(4), 1339-1375.
- Kothari, S., A. Leone, and C.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163-197.
- Lee, Jae-Eun, Gil-S. Bae and Seung-Uk Choi (2018), "Association of Audit Proficiency with Audit Quality: Proposed Proficiency-Adjustment to Standard Audit Hours Weighted by Ratio of Hourly Billing Rate by Grade", *Korean Accounting Journal*, 27(1), 39-76.
- Myers, J., L. Myers, and T. Omer (2003),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 and The Quality of Earnings :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3), 779-799.
- O’keefe, T., D. Simunic and M. Stein (1994), “The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 Evidence from a Major Public Accounting Fir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2), 241-261.
- Rho, Joon-Hwa (2009), “The Effects of Mandatory Auditor Rotation on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34(4), 1-28.
- Ryu, Seung-Woo, Jong-Cheon Lee, Eung-Gil Kim and Soong-Soo Han (2015), “Effect of Total Audit Hour and Internal Quality Assurance Hour on Audit Quality (Discretionary Accruals)”, *Korean Accounting Review*, 40(4), 213-246.
- Schelleman, C., and W. Knechel (2010), “Short-Term Accruals and The Pricing and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9(1), 221-250.
- Sohn, Sung-Kyu, Young-Han Lee and Yong-In Shin (2006), “Research on Audit Hour by Rank, Audit Risk, and Audit Quality - Focusing on the Audit Hour by Partner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44, 335-361.
- Sundgren, S., and T. Svanstrom (2014), “Auditor-In-Charge Characteristics and Going-Concern Reporting”,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1(2), 531-550.
- 금융감독원(2017),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 현황 분석, 보도자료(2017.7.25.).
- 금융위원회(20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법률 제 15022호(2017.10.31. 전부 개정, 2018.11.1. 시행).
- 한국공인회계사회(2019),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감사시간 확정, 보도자료(2019.2.14.).
- 한국공인회계사회(2019), 표준감사시간, 홈페이지(<https://www.kicpa.or.kr>) 게시자료